

# 심층분석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2026.04.14

### 1장. 산업(섹터) 분석: 한국 증권업은 사상 최대 호황 속에서 디지털 전쟁 중이다

#### 1-1. 산업 정의와 시장 구조

한국 증권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금융투자업의 핵심 섹터다. 증권사는 투자매매업(자기매매), 투자중개업(위탁매매·브로커리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신탁업 등 복수의 인가 업무를 수행하며,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초대형투자은행(4조원 이상),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로 위계화되어 있다. 2026년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증권사는 약 61개이며, 이 중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6개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가 시장의 구조적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초대형IB는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기업신용공여 등 일반 증권사가 할 수 없는 대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와 사업 다각화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한다.

한국 자본시장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려면 거래소 체제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2025년 3월 넥스트레이드(NXT)가 대체거래소로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KRX) 독점이던 주식 거래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시간을 오전 8시~오후 8시로 확장하고, 별도의 호가 체계와 수수료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증권사 IT 시스템에 이중 연동의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는 IT/Digital 직무의 업무 범위와 복잡도를 한 단계 높이는 구조적 변화다.

#### 1-2. 시장 규모와 수익 구조의 대전환

2025년 증권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약 9.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대비 38.9% 증가한 수치로, 코스피가 연간 75.6% 상승하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16.9조원(+57.1%)에 달하면서 수탁수수료가 8조 6,021억원(+37.3%)으로 급증한 결과다. 이 규모는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시기의 순이익 6.6조원마저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동학개미 때보다 더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일부 대형 증권사의 순이익이 은행 순이익을 넘어서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수익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다. 2019년 1,634억 원에 불과했던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은 2025년 약 2.4조원으로 15배 가까이 폭증하며 증권사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의미를 IT 관점에서 해석하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속도·사용자 경험이 곧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미국 장 오픈 시간(한국 시간 오후 11시 30분~새벽 6시)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의 24시간 운영·모니터링 체계가 증권사 IT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자수익 역시 구조적으로 중요한 수익원이다.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신용공여(증거금 대출), CMA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장 환경에 덜 민감한 안정적 수익으로 기능한다. 특히 발행어음 사업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부동산 PF, 인수금융, 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일종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이 사업의 핵심 인프라 역시 IT 시스템이다. 어음 발행·상환·이자 지급·만기 관리 등 전 과정이 전산으로 처리되며,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시스템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1-3. 산업의 핵심 트렌드 5가지

첫째, MTS 플랫폼 경쟁이 증권업의 주전장으로 확정되었다. 국내 주식거래의 65% 이상이 MTS를 통해 이루어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지고 있으며,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5대 증권사의 2024년 3분기 MTS 개발비만 합산 2,205억원(전년 동기 대비 +18%)에 달한다. MTS MAU(월간 활성 사용자) 기준으로는 삼성증권의 mPOP이 209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KB증권 M-able이 208만명으로 바짝 뒤쫓고 있고, 미래에셋 M-STOCK이 192만명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MTS 경쟁은 단순한 거래 기능을 넘어, 투자 정보·커뮤니티·AI 추천·금융상품 판매 등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향해 달리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 MTS MAU는 곧 고객 접점이자 수수료 수익의 원천이므로, MTS 개발·운영 역량은 증권사 IT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었다.

이 트렌드가 IT/Digital 직무 지원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증권사 IT는 더 이상 '백오피스 지원 조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객 경험을 설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론트라인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MTS의 화면 로딩 속도 0.1초, 주문 체결 지연 10밀리초가 고객 이탈과 직결되는 환경에서, 프론트엔드·백엔드·인프라 엔지니어 모두가 비즈니스 임팩트를 체감하며 일하게 된다.

**둘째, 핀테크 증권사의 파괴적 진입이 전통 증권사를 위협하고 있다.** 토스증권은 2021년 출범 이후 불과 4년 만에 대형사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카카오페이증권은 '효자' 절세계좌를 앞세워 예탁자산이 1년 만에 4조원에서 10조원(+155%)으로 급증하며 적자에서 탈출했다. 토스증권은 리테일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증권은 수익 다각화 전략을, 넥스트증권은 '숏폼 MTS'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넥스트증권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로부터 150억원 투자를 유치하고, 숏폼 콘텐츠 기반의 MTS로 기존 증권사와 완전히 다른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 있다.

핀테크 증권사의 위협이 전통 증권사 IT에 주는 압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작용한다. 하나는 '속도'다.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증권은 모바일 네이티브 조직이므로 기능 업데이트 주기가 주 단위의 반면, 전통 증권사는 월 1~2회 정기배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UX 기대치'다. 토스의 직관적 UI에 익숙해진 MZ세대 고객은 전통 증권사 MTS의 복잡한 화면 구성과 느린 반응 속도에 불만을 느낀다. 이러한 경쟁 압력이 전통 증권사의 IT 조직 개편과 인재 확충을 촉진하는 핵심 동인이다.

**셋째, AI가 증권업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KB증권은 AI디지털본부를 신설하고, 대화형 AI 서비스 'Stock AI'를 MTS에 탑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AI솔루션본부를 신설하고, 어닝콜 번역·요약 AI와 다이렉트 인덱싱 등을 도입했다. 프론트오피스에서는 AI 기반 종목 추천, 리서치 자동화, 로보어드바이저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들오피스에서는 이상거래 탐지(FDS),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머신러닝이 적용되고 있다. 백오피스에서는 계약서·보고서 자동 작성, 고객 문의 응대 챗봇, 내부 업무 자동화(RPA+AI) 등이 도입되고 있다.

AI 확산이 IT/Digital 직무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이다. 과거에는 '시스템 안정 운영'이 IT의 최우선 미션이었다면, 이제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AI 서비스와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연동', 'AI 결과물의 규제 준수 검증'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 AI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가 고객 자산 손실로 직결될 수 있어, 일반 IT 기업 대비 훨씬 엄격한 검증·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된다. 이 지점에서 '기술적 역량'과 '금융 도메인 이해'가 동시에 필요한 인재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넷째, STO(토큰증권) 법제화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예고한다.** 2026년 1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유동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해 증권사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PwC는 국내 STO 시장이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 입장에서 STO는 발행 수수료, 유통 수수료, 수탁 보관 수수료 등 새로운 수익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노드 운영,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토큰 수탁 시스템, 규제 보고 시스템 등 전혀 새로운 IT 인프라가 필요하다. 한국투자증권은 STO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IT/Digital 직무의 업무 범위가 전통적 주식·채권 시스템을 넘어 블록체인·분산원장 영역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다섯째, 클라우드 전환과 망분리 규제 완화가 IT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증권사 97%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며, 2024년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생성형 AI·SaaS 활용이 전면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에 금융사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2024~2025년의 규제 완화로 비중요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AWS, Azure, GCP 등 퍼블릭 클라우드 역량을 갖춘 IT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 데이터의 민감성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암호화·접근제어, 클라우드 보안 모니터링 등의 역량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1-4.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와 IT의 전방위 역할

증권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세 층위로 구성된다. **프론트오피스**는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영역으로, 리테일 영업(MTS/HTS를 통한 위탁매매), IB(IPO 주관·인수금융·M&A 자문), WM(자산관리·PB), 트레이딩(자기매매·채권운용)으로 나뉜다. **미들오피스**는 리스크 관리(시장리스크·신용리스크·운영리스크),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내부통제), 여신심사를 담당한다. **백오피스**는 주문 결제·청산, 계좌 관리, 회계·세무, 보고서 생성, 고객 정보 관리 등 후선 업무를 수행한다.

IT는 이 세 층위 모두에 깊이 관여한다. 프론트에서는 MTS/HTS 개발과 운영,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DMA(Direct Market Access) 인프라, 리서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담당한다. 미들에서는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 대시보드, VaR(Value at Risk) 계산 엔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백에서는 코어뱅킹 시스템(원장 관리), KRX·KSD 전문 통신, 일일·월간·연간 배치 정산, 세무 보고 자동화, DR(재해복구) 시스템을 관리한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점은 증권업 IT가 '범용 IT'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IT 기업에서 서비스 장애는 사용자 불편으로 끝나지만, 증권사에서 장 중 시스템 장애는 고객의 실질적 금전 손실, 금감원 보고 의무, 언론 보도, 심한 경우 행정 제재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증권사 IT는 '변경 최소화'와 '이중화(Redundancy)'를 기본 원칙으로 삼으며, 모든 시스템 변경은 엄격한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 보수성은 때로 혁신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고객 자산을 다루는 금융 시스템의 본질적 특성이므로 IT 인재는 이 긴장 관계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 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국내 증권업의 경쟁 구도는 '초대형IB 6강 + 핀테크 3사'로 요약할 수 있다. 초대형IB 6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바탕으로 발행어음, IMA, 대규모 IB 딜을 수행하며 시장을 주도한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10.5조), 미래에셋증권(10.3조), NH투자증권(7.5조), 삼성증권(7.1조), KB증권(6.7조), 메리츠증권이 자기자본 기준 상위를 차지한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5.4조원으로 초대형IB에는 속하지 않지만, 온라인 브로커리지 강자로서 순이익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실질적 경쟁자다.

핀테크 3사는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넥스트증권이다. 토스증권은 MZ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리테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톡이라는 4,600만 사용자 플랫폼을 배후에 두고 있다. 넥스트증권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숏폼 콘텐츠 기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미국의 찰스 슈왑, 피델리티,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제로 수수료 모델, 다이렉트 인덱싱,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략이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특히 인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터랙티브 브로커스가 넥스트증권에 직접 투자한 것은, 글로벌 증권사들이 한국 시장을 핀테크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산업 분석에서 지원자가 가져가야 할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다. 첫째, 증권업 IT는 더 이상 비용 센터(cost center)가 아니라 수익 센터(revenue center)로 전환되고 있다. MTS 경쟁력이 곧 수수료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AI·STO·클라우드라는 세 가지 기술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어, IT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이다. 셋째, 핀테크의 위협은 전통 증권사의 IT 투자를 강제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곧 IT 인재의 전략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면접에서 "왜 증권사 IT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조직이 아니라, 직접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만드는 프론트라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답변하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 2장. 경쟁사 비교 및 한국투자증권 포지셔닝

### 2-1. 2025년 실적으로 보는 경쟁 지형

2025년 증권사 순이익 순위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2조 135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1조 5,936억원으로 2위, 키움증권이 1조 1,150억원으로 3위, NH투자증권이 1조 315억원으로 4위, 삼성증권이 1조 84억원으로 5위, KB증권이 6,824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순이익은 2위 미래에셋과 약 4,200억원의 격차를 보이며, 이는 단순한 순위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수익 체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MTS MAU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다. 삼성증권 mPOP이 약 209만명으로 1위, KB증권 M-able이 약 208만명으로 2위, 미래에셋 M-STOCK이 약 192만명으로 3위이며, 한국투자증권 뱅키스는 약 81만명(점유율 6.9%)으로 10대 증권사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역전 현상은 한국투자증권의 수익이 리테일 브로커리지보다는 IB·운용·발행어음 등 B2B·기관 중심 사업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리테일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향후 최대 과제임을 시사한다.

### 2-2. 전산운영비(IT 투자)가 말해주는 디지털 전략의 실체

증권사의 IT 투자 수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전산운영비다. 키움증권이 1,194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고, 삼성증권이 1,174억원으로 2위, 미래에셋증권이 983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352억원으로 대형사 중 최저이며,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외주용역비 계정 분류 변경 때문이라 설명했으나, 절대 금액 기준으로 키움증권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 수치가 갖는 전략적 함의는 명확하다. 순이익 2조원을 벌면서 전산 투자에 352억원만 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금감원이 증권사 CIO를 긴급 소집하고 IT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실적 1위 기업이 IT 투자 최하위라는 사실은 조만간 대규모 IT 투자 확대가 불가피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IT/Digital 직무 지원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IT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인력이 총원되고, 내부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2-3. 각사 디지털 전략의 핵심 차별점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WM) 분야에서 AI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AI솔루션본부를 신설해 어닝콜 번역·요약 AI, 다이렉트 인덱싱(개인화된 인덱스 포트폴리오), AI 기반 자산배분 추천 서비스를 출시했다. STO 분야에서도 자체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컨소시엄(NFI)을 주도하며 인프라 레벨에서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MTS MAU 192만명으로 3위지만, 해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업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IT 관점에서 미래에셋의 특징은 AI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15개국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다국적 IT 인프라 운영 경험이다.

**삼성증권**은 MTS MAU 1위 탈환에 성공하며 리테일 디지털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 MTS 'mPOP'의 점유율이 1위를 기록했으며, 'mPOP mini'라는 초보 투자자 전용 경량 버전도 출시했다. '로보굴링'이라는 AI 투자 알고리즘과 채권 투자 접근성 강화(1만원 단위 채권 매매)가 차별화 포인트다. 전산운영비 1,174억원(2위)으로 IT 투자에도 적극적이며, 삼성그룹 계열사 시너지를 활용한 인프라 역량이 강점이다.

**KB증권**은 KB금융그룹이라는 거대 금융 생태계 안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AI금융상담시스템(TTS·STT·TA 통합)을 MTS에 탑재하고, 'Stock AI'라는 대화형 AI 투자 어시스턴트를 출시했다. DCM(채권 발행시장) 1위, IPO 주관 실적 상위를 유지하며 IB 역량도 강하다. 최근에는 IMA 인가를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실탄을 확보하며 한국투자증권을 추격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브로커리지의 전통 강자로서, 전산운영비 1,194억원으로 업계 최대의 IT 투자를 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강점은 '기술 중심 DNA'다. 1997년 인터넷 증권사로 출발한 이래 IT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었으며, 트레이딩 시스템의 속도와 안정성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MTS 사용자 경험(UX)에서는 핀테크 대비 열위라는 평가가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5.4조원)로 인해 초대형IB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 발행어음·IMA 사업에서 제한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그룹 산하로 전국 농협 네트워크라는 고유한 채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측면에서는 'QV(퀀텀벨류)' MTS를 운영하며 MAU 약 161만명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기자본 7.5조원으로 3위이며, IB와 채권운용에서 강점을 보인다.

### 2-4. 핀테크 증권사의 진화와 시사점

토스증권의 성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에서 토스증권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 대형사들의 텃밭이 잠식되고 있다. 토스증권의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다. 첫째, 토스 앱의 2,000만 이상 MAU를 활용한 고객 유입 비용 제로(Zero CAC). 둘째, 모바일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인한 빠른 기능 배포. 셋째, 직관적 UX에 대한 MZ세대의 높은 충성도다. 토스증권의 AI 어닝콜 번역 서비스는 출시 6개월 만에 120만 이용자를 확보했는데, 이는 AI 기능이 MTS 경쟁력의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카카오톡 내 자연스러운 금융 서비스 연결, 절세계좌(ISA·연금) 중심의 장기 자산관리 포지셔닝,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계좌 연동·자금 이체)가 핵심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27.19%)라는 사실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뱅크와 같은 카카오 계열이지만,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를 통한 고객 유입 채널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과 협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도다.

### 2-5.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국투자증권의 포지셔닝은 '실적의 왕, 디지털의 도전자'로 요약된다. 면접에서 경쟁사 대비 한국투자증권의 강점과 약점을 물었을 때, "순이익·자기자본·IB·발행어음에서 압도적 1위이나, MTS MAU와 전산운영비에서는 개선 여지가 크다"는 양면적 분석을 제시하면서, "바로 그 점이 IT 인재에게 기회"라는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토스증권·카카오페이증권 등 핀테크 경쟁자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통 증권사의 IT도 속도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며, 그 변화를 주도하고 싶다"는 방향의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다.

### 3장. 한국투자증권 심층 분석: '실적의 왕, 디지털의 도전자'

#### 3-1. 그룹 구조와 지배구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코스피 071050) 산하의 핵심 자회사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국내 유일의 IB(투자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로, 은행 중심인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지주회사 산하에는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한국투자신탁운용(ACE ETF 브랜드),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벤처캐피탈·PE),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있다. 김남구 회장을 중심으로 한 범동원가 계열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그룹 구조가 IT/Digital 직무 지원자에게 갖는 의미는, 한국투자증권 IT가 단순히 증권 거래 시스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룹 계열사 간 시스템 연동(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캐피탈 대출 연계, 부동산신탁 상품 등), 카카오뱅크와의 계좌 연동, 해외법인(베트남·인도네시아·미국 등)과의 글로벌 IT 인프라 관리 등 매우 넓은 범위의 시스템을 아우른다. 이는 입사 후 경험할 수 있는 업무의 다양성과 성장 기회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3-2. 수익 엔진의 구조적 분석

한국투자증권의 수익구조는 동종 업계에서 가장 독특하다. 운용부문(자기매매·발행어음 운용)이 전체 영업순수익의 약 46.3%를 차지하며, 이는 다른 대형 증권사 대비 현저히 높은 비중이다. 발행어음 잔액만 17.6조원으로 업계 최대이며, 금리 하락기에 발행어음 운용 수익이 급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IB(기업금융)가 약 16.5%로 2위 수익원이며, IPO 주관·인수금융·M&A 자문에서 업계 최상위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는 약 12.1%로 3위 수익원이며, 자산관리(WM)가 약 4.3%를 차지한다.

이 수익구조의 IT적 함의는 깊다. 발행어음·운용 부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채권 매매 시스템, 자금 관리 시스템, 유동성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관·운용 영역'의 IT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IT라고 하면 MTS 개발을 먼저 떠올리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발행어음 발행·상환 자동화,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 실시간 유동성 갭 모니터링, ALM(자산부채관리) 시스템 등이 수익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면접에서 "MTS 개발만 하고 싶다"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수익원인 발행어음·운용 시스템의 고도화에도 관심이 있다"는 방향의 답변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 3-3. 전략 방향: IMA·글로벌·카카오뱅크 시너지

한국투자증권의 중장기 전략은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IMA(종합투자계좌)다. 한국투자증권은 IMA 첫 인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증권사 최초로 은행과 유사한 수신(예금) 기능을 확보하게 되었다. IMA는 고객이 증권사에 자금을 예치하면, 증권사가 이를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기존 CMA·발행어음과는 차원이 다른 '은행 기능'이다. IMA가 본격 출시되면 대규모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이를 지원하는 계좌 관리·자금 운용·규제 보고 IT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IT/Digital 직무 지원자가 IMA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면,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인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글로벌 확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SF Credit Partners), 베트남(KIS Vietnam Securities), 인도네시아(PT KISI) 등 다수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의 폭증과 함께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 다국적 결제 연동, 시차 대응 모니터링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IT 관점에서는 해외 거래소(NYSE, NASDAQ, HKEX 등)와의 FIX 프로토콜 연동, 환율 실시간 처리, 다국가 세무 보고 시스템 등이 핵심 과제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세 번째 축은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지분 27.19%)로서, 카카오뱅크 앱에서 증권 계좌 개설·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이 서비스 출시 이후 1년 만에 150만 신규계좌가 개설되었고, 신규 고객의 74%가 20~30대 MZ세대였다. 이 채널이 한국투자증권의 리테일 고객 기반 확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 API 연동·계좌 관리·고객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이 IT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3-4. 뱅키스(BankIS)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현황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비대면 계좌 브랜드로, MTS·HTS·웹트레이딩을 아우르는 디지털 거래 플랫폼이다. 주요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니스탁**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로, 1,000원 단위로 미국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2021년 출시 이후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해외주식 고객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IT 관점에서 미니스탁은 소수점 주문의 합산·분할 처리, 실시간 환율 적용, 해외 브로커(드라이브웰스 등)와의 API 연동 등 복잡한 시스템 로직이 필요한 서비스다.

**Open API 개발자센터**는 REST API와 웹소켓 기반 실시간 시세·주문 API를 외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자체 트레이딩 봇을 개발할 수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이 한국투자증권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Open API 전략은 한국투자증권이 '플랫폼으로서의 증권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API 설계·보안·트래픽 관리·문서화 등이 IT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AI 리서치 서비스(AIR)는 일 10만건의 분석자료를 학습해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AI 기반 리서치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서비스를 'AI리서치'와 'AIT레이딩' 두 축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리서치본부에서 생성형 AI 활용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서비스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뱅키스 MTS의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UX)과 MAU에서는 경쟁사에 뒤처져 있다. 삼성증권 mPOP이나 KB증권 M-able이 직관적인 UI와 풍부한 콘텐츠로 MAU를 끌어올린 반면, 뱅키스는 상대적으로 기능 중심의 전통적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IT/Digital 직무의 핵심 미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3-5. IT 조직 구조와 최근 기술 투자

2022년 말 IT본부, DT(디지털전환)본부, 정보보호 담당을 통합해 '디지털본부'를 출범했다. 정일문 前사장은 이 조직 개편에 대해 "디지털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본부는 약 280~300명 규모로 전사 인원(약 2,774명)의 약 10%를 차지하며, IT담당·DT담당·데이터담당·정보보호담당 4개 담당, 14개 부서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플랫폼본부**가 MTS/HTS 등 고객접점 앱의 기획·개발을 전담한다.

디지털본부와 플랫폼본부의 역할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지원 준비에 중요하다. 디지털본부는 회사 전체의 IT 인프라(서버·네트워크·DB·보안), 업무 시스템(원장·결제·청산), 데이터 플랫폼, 정보보호를 담당한다. 플랫폼본부는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MTS·HTS·웹트레이딩 앱의 기획·개발·운영을 담당한다. 채용공고에서 'IT/Digital\_개발/운영'은 주로 디지털본부 소속의 채널 개발, 백엔드, 인프라 등의 업무를, 'IT/Digital\_디지털/데이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분석 등의 업무를 가리킨다. 다만 실제 배치는 인턴 기간 중 적성과 조직 니즈에 따라 결정되므로, 두 본부의 업무 모두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기술 투자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다. 한국투자증권은 클라우드웍스와 협력해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이 플랫폼은 RAG(검색증강생성) 기반 데이터 시스템, AI 에이전트 개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발·운영 인프라, 프롬프트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ChatGPT를 사내에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권사 고유의 데이터(리서치 보고서, 시황 분석, 고객 상담 이력, 규제 문서 등)를 학습한 전문 AI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Digital 직무 지원자가 RAG, 벡터 DB, LLM 파인튜닝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 강한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

이 외에도 전사 파이썬 경진대회(금융 데이터 분석·자동화), 태블로 데이터 시각화 도입, '탈 엑셀' 캠페인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다. 2022년에는 CTO 직위를 신설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했으며, 개발자 출신 임원이 디지털 전략을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 3-6. 리스크 요인 분석

한국투자증권이 직면한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발행어음 만기 미스매치 리스크**가 가장 구조적이다. 한국신용평가(KIS)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매칭차입부채 비중이 35.5%로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발행어음 잔액 17.6조원 중 대부분이 개인 고객 대상 조달이고 예금자보호 미대상이므로 위기 시 대규모 환매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비유동 자산에 투자되어 있어, 단기간에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IT 관점에서는 실시간 유동성 갭 모니터링 시스템, 환매 시뮬레이션 엔진, 스트레스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등이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다.

**둘째, 전산사고 리스크**가 업계 전체에서 심각하다. 최근 5년간 35개 증권사에서 총 429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으며, 한국투자증권도 2022년 기계실 전력문제로 서버 다운을 경험한 바 있다. 2025년에는 프로그램 오류 건수가 증가하고, 외부 요인(DDoS 공격, 인터넷 장애 등)에 의한 전산사고 취약점도 노출되었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 CIO를 긴급 소집하고, 전산 안정성 확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IT/Digital 직무의 '운영' 측면이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장애 예방·감지·대응·복구 역량이 증권사 IT 인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상기시킨다.

**셋째, 사이버 보안 및 딥페이크 리스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을 사칭하는 투자사기가 발생했으며,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정보보안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랜섬웨어, APT 공격, 내부자 위협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시스템의 구축·운영도 IT/Digital 직무의 중요한 업무 영역이다.

**넷째, 규제 환경 변화 리스크**가 상존한다. STO 법제화, IMA 제도 도입,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제도,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변화 등 금융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각각의 규제 변화는 IT 시스템의 신규 개발 또는 대규모 변경을 필요로 하며, 규제 시행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이 수반된다. 이 점에서 '규제 감수성'이 증권사 IT 인재의 필수 역량이 된다.

### 3-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국투자증권 심층 분석에서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이익 2조원의 이익체력을 가진 기업이 디지털 투자를 본격 확대할 시점에 있으며, 이 변화의 중심에 서고 싶다"는 타이밍 논리를 구사할 수 있다. 둘째, IMA 첫 인가 사업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증권사가 은행 기능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시대의 IT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는 방향의 스토리가 차별화된다. 셋째, 발행어음 17.6조원이라는 회사 최대 수익원의 IT 시스템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이 지원자는 회사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 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 4-1. 공식 인재상과 그 해석

한국투자금융지주 공식 채용 사이트에 명시된 인재상은 세 가지 가치로 구성된다. 첫째,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둘째,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프로 금융인을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채용 사이트 기준 핵심 키워드는 열정, 도전정신, 전문역량, 변화주도의 4대 요소이며, 회사는 "모든 것이 완벽한 Good People보다 회사와 맞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인재상을 IT/Digital 직무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정직과 신용'은 금융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무결성, 로그 투명성, 장애 보고의 정직성으로 연결된다. 증권사 IT에서 장애 발생 시 원인을 축소·은폐하는 것은 규제 위반이자 조직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문제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근본 원인을 찾는 문화가 중요하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은 시스템 안정성이 곧 고객 자산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장 중 10초의 시스템 다운이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관점에서의 시스템 설계·운영이 필수다.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 자세'는 레거시 시스템의 제약 속에서도 혁신의 방법을 찾는 역량, 새로운 기술(AI·클라우드·STO)에 대한 학습 의지로 해석된다.

#### 4-2.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

잡플래닛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기업 평점은 3.2/5.0(574건), 면접 난이도는 3.1/5.0(447건)으로 대형 증권사 평균 수준이다. 직원 평균연봉은 약 8,154만원이며, 주 5일 근무·4대보험·학자금 지원·건강지원·휴양소 운영 등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

블라인드 등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투자증권 IT에 대해 몇 가지 특징적인 논의가 관찰된다. IT 경력직의 계약연봉직→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빈번하며, 디지털본부와 플랫폼본부 간 업무 범위와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의견도 있다. 증권사 특유의 보수적 조직 문화(위계 중심, 정장 근무 등)가 IT 조직에도 일부 적용된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디지털본부 출범 이후 개발자 친화적 문화(캐주얼 복장, 유연근무 등)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일문 前사장은 비즈위치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IT 인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최고경영진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IT 직군이 단순한 지원 부서가 아니라 경영 전략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위상 변화가 실제 채용·의사결정권·커리어 패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입사 후 경험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인턴 기간 중 조직 문화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 4-3. 증권사 IT/Digital 직무가 선호하는 인재 특성 — 기술+금융 융합형

증권사 IT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 특성은 **기술과 금융의 융합적 사고방식**이다. 증권사 IT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주문→체결→결제→청산이라는 금융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하고, 이를 시스템 로직으로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의 차이, '예수금'과 '증거금'의 관계, 'T+2 결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코딩 실력이 뛰어나도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이 융합적 사고는 소통 능력으로도 발현된다. 트레이더가 "주문 체결 속도를 밀리초 단위로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네트워크 레이턴시·애플리케이션 처리 시간·DB 쿼리 최적화 중 어디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진단하고, 비기술 직군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결 방안과 타임라인을 설명해야 한다. 이 '번역가' 역할을 잘 수행하는 IT 인재가 증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는다.

### 4-4. 장애 대응 책임감과 스트레스 내성

증권사 IT의 가장 고유한 특성은 **장 중 시스템 장애에 대한 절대적 책임감**이다. 장 시작 전(09:00)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장 마감(15:30)까지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상적 최우선 업무다. 장 중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전사 비상 체제가 가동되며, 5분 이내 원인 파악→10분 이내 1차 대응→30분 이내 서비스 정상화가 목표다. 장애가 고객 자산 손실로 이어지면 금감원 보고 대상이 되며, 심한 경우 임직원 징계나 회사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 IT 인재에게는 고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스트레스 내성이 필수적이다.

이 특성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위기 대응 경험'을 어필하는 근거가 된다. 프로젝트 마감 직전 긴급 장애를 해결한 경험, 팀 프로젝트에서 갑작스러운 요구사항 변경에 대처한 경험 등을 "증권사 IT의 장애 대응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

### 4-5. 규제 감수성 — 일반 IT와 가장 큰 차이

증권사 IT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금감원 IT 가이드라인,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다층적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운영된다.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 분리(망분리), 정기배포 중심의 변경관리 체계,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 필수 구조, 데이터 백업·보관 의무, 접근 로그 기록·보존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은 일반 IT 기업의 '빠른 배포·실험·학습'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타트업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배포할 수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변경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시스템 변경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보안 검토, 컴플라이언스 검토, 영향도 분석, 테스트 계획 수립, 롤백 계획 수립을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보수성이 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객 자산과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임을 이해해야 한다.

규제 감수성이 높은 IT 인재란, 이러한 제약을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망분리 규제 안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거나, 변경관리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배포 주기를 단축하거나, 규제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해 컴플라이언스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식이다.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금융 IT의 진정한 도전이자 매력"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면 면접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4-6. 협업 역량과 정확성에 대한 집착

금융 IT 인재에게는 다부서 협업 역량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하나의 기능을 개발하더라도 기획자(비즈니스 요구 사항), 리스크팀(리스크 평가),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검토), 보안팀(보안 검토), QA(테스트), 운영팀(배포·모니터링), 외부 거래소·결제원(연동 테스트)과 동시에 소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문서화,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 조율 능력이 핵심이다.

정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은 일반 IT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금융 데이터 처리에서 소수점 한 자리의 오류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문 수량·가격·계좌번호의 잘못된 매핑은 고객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드 리뷰,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UAT(사용자 인수 테스트) 등 다단계 검증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절차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테스트 커버리지 90% 이상"이 기본 기준인 경우가 많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업무 습관을 가진 인재가 증권사 IT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 4-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문화 분석에서 지원자가 강조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는 '금융 도메인 학습 의지', '장애 대응형 문제해결력', '규제 환경에서의 혁신적 사고'다. 자기소개서에서 기술 역량을 나열하는 것보다, "금융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기술적 해결책을 찾은 경험"이나 "시간 압박 속에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증권사 IT가 일반 IT와 다른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이 지원자는 직무를 깊이 이해하고 지원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 5장. IT/Digital 개발·운영 직무 분석

### 5-1. 채용공고 분석: FY2026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

대상 공고는 한국투자증권 FY2026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이며, 접수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다. IT/Digital 트랙은 '개발/운영'과 '디지털/데이터' 두 세부 직무로 나뉘며, 전형은 서류전형 → 직무 역량검사 → 면접전형 → 채용검진 → 인턴실습 → 최종면접 순서로 진행된다. 국내대 IT/Digital\_개발/운영 자소서 작성자가 116명, GEM(글로벌인재) 22명, 해외대 8명으로 총 146명 이상이 지원 준비 중이며, 공고 조회수는 92,066회에 달한다.

과거 채용공고(경력직·신입 포함)를 종합하면, 개발/운영 트랙의 세부 직무는 디지털본부 소속과 플랫폼본부 소속으로 구분된다. 디지털본부 소속으로는 채널 개발, 백엔드, 인프라(서버·미들웨어·DBA·네트워크), 디지털(전략 기획), 데이터, 정보보호가 있다. 플랫폼본부 소속으로는 서버개발, Android/iOS 개발,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엔지니어(파이프라인·자동화), 클라우드 엔지니어(인프라 구축·운영), UX기획, UX디자인, 기획운영이 있다. 또한 해외MTS개발부에서는 증권플랫폼 원장개발, 증권플랫폼 개발, 백엔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FY2026 인턴 공채는 채용연계형으로, 인턴 기간 중 성과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FY2025에도 동일한 형태의 인턴 공채가 진행된 바 있어, 한국투자증권이 이 채용 방식을 정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2. 하루·한 달·1년 단위 업무 사이클

증권사 IT 개발·운영 직무의 업무는 시간 축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리는 데 핵심적이다.

**하루 단위 업무**는 장(market)의 운영 시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침 8시경 출근하면 가장 먼저 시스템 헬스 체크를 수행한다. 전일 야간 배치 작업(일일 정산·이자 계산·시세 데이터 갱신 등)의 결과를 확인하고, 서버·네트워크·DB의 상태를 모니터링 대시보드에서 점검한다. 이상이 있으면 장 시작(09:00)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장 시작 후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모드로 전환된다. 시스템 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사용량, 주문 처리 속도(TPS), 에러 발생률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한다. 특히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점(개장 직후, 공매도 재개일, 대형 IPO 청약일 등)에는 시스템 부하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리소스 확장(스케일아웃)과 로드밸런싱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장 마감(15:30) 후에는 일일 정산 배치 처리가 시작된다. 당일 체결된 모든 주문의 정산 데이터를 생성하고,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KRX·KSD와의 전문 송수신을 처리하며, 고객 계좌의 예수금·증거금·미수금을 갱신한다. 이 과정에서 에러 로그를 분석하고, 당일 발생한 소규모 이슈에 대한 패치를 적용한다. 저녁 이후에는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며(미국 장 오픈: 한국 시간 23:30), 야간 교대 또는 온콜(on-call) 체제로 해외 시장 연동 모니터링과 DR 점검을 수행한다. 이 해외주식 야간 운영 업무가 최근 3~4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증권사 IT의 주요 변화 중 하나다.

**한 달 단위 업무**는 정기 배포 사이클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 1~2회의 정기배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 개발 완료 → 코드 리뷰 → QA 테스트 → UAT(사용자 인수 테스트) → 스테이징 배포 → 프로덕션 배포 →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표준 프로세스를 거친다. 배포 주말이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배포 후 월요일 장 시작 전까지 정상 가동을 확인해야 한다. 월간 장애 리포트 작성 및 리뷰도 중요한 월별 업무다. 당일 발생한 모든 장애의 원인·대응·재발방지 대책을 정리하고, IT 리더십에 보고한다. 보안 점검(취약점 스캐닝, 패치 적용)과 성능 테스트(부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도 월 단위로 수행된다.

**1년 단위 업무**에는 대규모 시스템 프로젝트, 연간 IT 예산 수립·집행, 금감원 IT검사 대응, 대규모 인프라 교체, 재해복구(DR) 훈련이 포함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보통 2~3년 주기)가 진행 중이면 전체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에 할애된다. STO·IMA 등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신규 시스템 개발도 연 단위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연말에는 익년도 IT 예산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인력 계획을 세우는 전략적 업무도 수행한다.

### 5-3. 이해관계자 맵: 누구와 일하는가

IT/Digital 개발·운영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이해관계자는 내부와 외부로 나뉜다. **내부 이해관계자**로는 프론트오피스(트레이더·PB·IB부서)가 가장 빈번한 소통 대상이다. 이들은 새로운 기능 요구, 시스템 개선 요청, 장애 신고의 주요 원천이며, IT 입장에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가장 먼저 전달받는 창구다. 미들오피스(리스크 관리·컴플라이언스)는 리스크 한도 설정 시스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규제 보고 시스템 등의 개발·운영에서 밀접하게 협업한다. 백오피스(결제·청산·회계)는 일일 정산, 계좌 관리, 세무 처리 등의 업무 시스템에서 IT의 주요 사용자이자 협업 대상이다. 플랫폼본부(MTS/HTS 기획)는 고객접점 앱의 기획·디자인을 주도하며, 디지털본부 IT와 기능 개발·인프라 지원에서 긴밀히 협업한다. 데이터담당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석 인프라, 시각화 도구 등에서 IT 인프라 팀과 함께 일한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더욱 다양하다. 한국거래소(KRX)는 주식·채권·파생상품의 주문·체결 전문을 송수신하는 핵심 연동 대상이며, FIX 프로토콜과 KRX 고유 전문 포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넥스트레이드(NXT, 대체거래소)는 2025년 출범한 새로운 연동 대상으로, 기존 KRX와는 다른 호가 체계와 거래시간을 지원해야 하므로 IT 부담이 가중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결제·청산·예탁 관련 전문 통신 대상이며, 코스콤은 증권 시세 데이터·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다. SI업체(삼성SDS, SK C&C, LG CNS 등)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개발 인력을 파견하거나 솔루션을 납품하는 협력사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AWS, Azure, NHN Cloud 등)는 인프라 영역의 주요 파트너다. 해외 거래소·브로커(NYSE, NASDAQ, CME, 드라이브웰스 등)는 해외주식 주문 라우팅과 결제 연동 대상이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자 맵을 면접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증권사 IT는 내부의 다양한 부서뿐 아니라 거래소·결제원·감독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히 협업해야 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다자간 협업 환경에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체계적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핵심"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5-4. 필요 역량 체계: 기술·지식·소프트스킬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기술 역량**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Java**와 C/C++다. 증권사 업무 시스템과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Java 기반(Spring Framework)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매매 시스템·고성능 처리 엔진에는 C/C++가 사용된다. 특히 주문 체결 엔진(OMS, Order Management System)과 시세 분배 시스템은 마이크로 초 단위의 처리 속도가 요구되므로 C/C++의 저수준 최적화 역량이 중요하다. Python은 데이터 분석·자동화·AI 모델 서버에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JavaScript/TypeScript는 웹 기반 HTS와 관리자 도구 개발에, Swift/Kotlin은 MTS 모바일 앱 개발에 필요하다.

DB 역량은 증권사 IT에서 특히 중요하다. 핵심 원장 DB는 대부분 **Oracle**이며, 복잡한 금융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PL/SQL 프로시저, 대용량 배치 쿼리 최적화, 파티셔닝·인덱싱 전략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SQLD(SQL Developer) 자격증은 DB 역량을 증명하는 기본 자격으로 인정된다. 최근에는 PostgreSQL, MongoDB, Redis 등 다양한 DB도 도입되고 있지만, Oracle이 핵심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증권업 IT의 특징이다.

인프라 역량으로는 Unix/Linux 서버 관리(Solaris, AIX, RHEL), 미들웨어(WebLogic, Tomcat, Kafka), 네트워크(TCP/IP, FIX 프로토콜, 전용선 관리) 등이 기본이다. 최근에는 클라우드(AWS, Azure) 역량과 DevOps(CI/CD 파이프라인, Docker, Kubernetes, 인프라 as 코드) 역량의 중요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Git 기반 형상관리, Jenkins/GitLab CI 기반 자동 빌드·배포, SonarQube 기반 코드 품질 관리 등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지식 역량** 측면에서는 주식·채권·파생상품의 매매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좌개설 → 입금 → 주문(시장가/지정가/조건부) → 체결 → 결제(T+2) → 출금의 전체 흐름, 증거금·예수금·미수금의 개념과 계산 로직, 공매도·대차거래·신용거래의 시스템적 처리 방식 등을 이해해야 올바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지식과, 금감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IT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필요하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기사, SQLD, 증권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이 있으며, 정보처리기사는 사실상 필수로 간주된다.

**소프트스킬** 측면에서는 앞서 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비IT 현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장애 시 체계적 문제 해결(원인 분석→응급조치→근본 해결), 고압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다부서 프로젝트 협업 역량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문서화 능력(설계 문서, 변경 요청서, 장애 보고서 등)도 증권사 IT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모든 시스템 변경은 문서화되어야 하고, 금감원 검사 시 해당 문서가 증적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이다.

### 5-5. 성과 지표(KPI)와 평가 기준

증권사 IT의 KPI는 다른 산업 대비 매우 명확하고 정량적이다.

시스템 가용성(uptime)이 가장 기본적인 KPI이며, 99.95% 이상(연간 다운타임 4.38시간 이내)이 일반적인 목표다. 핵심 시스템(주문·체결·결제)의 경우 99.99%(연간 다운타임 52.56분 이내)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 평균 복구시간(MTTR)은 30분 이내가 목표이며, 금감원 보고 대상 전산사고는 0건이 기본이다. 이 KPI들은 IT 조직 전체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이며, 개인 평가에서도 "자신이 담당한 시스템에서 장애가 몇 건 발생했는가, 얼마나 빨리 복구했는가"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된다.

**프로젝트 납기 준수율**은 95% 이상이 목표다. 금융 프로젝트는 규제 시행일, 상품 출시일 등 외부에서 결정되는 데드라인이 있어, 이를 놓치면 비즈니스 손실이나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능력"이 매우 높이 평가된다. **배포 성공률**은 99% 이상이 목표이며, 배포 실패 시 즉시 롤백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는 사용자(현업 부서) 만족도, 기술 역량 향상도(신기술 학습·적용 실적), 프로세스 개선 기여도(자동화·효율화 제안 및 구현), 팀 내 협업·지식 공유 기여도 등이 있다. 인턴 기간 중에는 이 모든 KPI가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입사 후 이런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업무 태도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 5-6. 대표 업무 시나리오: 신규 금융상품 시스템 구축

가상의 워크플로우 예시로, 'IMA(종합투자계좌)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살펴보겠다. 이 시나리오는 한국투자증권이 실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IT/Digital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먼저 비즈니스 기획팀과 함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IMA 계좌의 개설·해지·입출금 프로세스, 운용 방식(예금·채권·단기금융상품 등), 이자 계산·지급 로직, 예금자보호 적용 방식 등을 시스템 사양으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팀과 함께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의 요건을 시스템 로직에 반영하고, 리스크관리팀과 함께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양을 정의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CMA·발행어음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원장 DB 스키마를 설계하며, KRX·KSD와의 전문 연동 방식을 확정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Java 기반 백엔드 서버, Oracle 기반 원장 DB, MTS/HTS 프론트엔드 화면을 구현한다. QA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트→통합 테스트→성능 테스트→보안 테스트→UAT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을 수정한다. 배포 단계에서는 변경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스테이징 환경에서 최종 검증 후 프로덕션에 배포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IT/Digital 개발·운영 인턴이 맡을 수 있는 구체적 업무는, QA 테스트 케이스 작성·실행, 배치 작업 모니터링 스크립트 개발, DB 쿼리 최적화, 운영 매뉴얼 문서화, 소규모 화면 기능 개발(팝업, 안내 메시지 등) 등이다. 인턴이라고 해서 단순 잡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전체 흐름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 5-7. 커리어 성장 경로와 장기적 전망

증권사 IT 직무의 커리어 경로는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 첫째, **기술 전문가 트랙**으로 특정 기술 영역(DB, 인프라, 보안, AI 등)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아 수석 엔지니어·아키텍트로 성장하는 경로다. 둘째, **프로젝트 매니저(PM) 트랙**으로 기술 역량 위에 프로젝트 관리·이해관계자 조율 역량을 더해 IT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으로 성장하는 경로다. 셋째, **IT 리더십 트랙**으로 기술+경영 역량을 결합해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나 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성장하는 경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22년 CTO 직위를 신설한 것은 기술 리더십 트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증권사 IT 인재의 시장 가치는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금융 IT 인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경험 있는 금융 IT 개발자는 증권사 간 이직이 활발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으로의 전환도 용이하다. 증권사 IT에서 3~5년의 경험을 쌓으면, 금융 도메인 지식+시스템 개발·운영 역량+규제 이해라는 세 가지 축의 역량을 갖추게 되며, 이는 금융권 전체(은행, 보험, 자산운용 등)에서 높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는 포트폴리오가 된다.

### 5-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직무 분석에서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사 IT는 장 중 시스템 안정성이 고객 자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책임 직무이며, 이 책임감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직무 이해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기술 역량만큼이나 금융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다부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한국투자증권은 IMA·STO·생성형 AI라는 세 가지 신성장동력 앞에서 있으며, 이 전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환기에 합류하는 IT 인재의 역할은 단순 시스템 운영을 넘어 회사의 디지털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시각을 보여주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더퍼블릭 — 증권사 순이익 10조 돌파 보도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55>
2. 이코노밍글 — 역대급 불장이 만든 '사상 최대' 성적표 — <https://econmingle.com/economy/securities-firms-surpass-banks-2-trillion/>
3. 헤럴드경제 — 증권사 순이익 10조원 육박 보도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2853>
4. 디지털타임스 — 증권사 순이익 10조 '역대 최대' — <https://www.dt.co.kr/article/12053997>
5. 스트레이트뉴스 — 지난해 증권사 순이익 9.2조 '최대'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830>
6. 비즈워치 — 해외주식 수수료시장, 토스에 밀려 나는 터줏대감 —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5/06/27/0018>
7. 전자신문 — 5대 증권사 AI 기반 MTS 고도화 가속 — <https://www.etnews.com/20250110000179>
8. 오피니언뉴스 — 삼성증권 MTS 'mPOP' 점유율 1위 —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95>
9. 인사이트코리아 — IT 사고 낮추자, IT 투자 늘리는 증권가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299>
10. 중앙이코노미뉴스 — 핀테크 증권사 성장 전략 — <https://www.joongange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389>
11. 뉴스토마토 — 앞서가는 토스증권, 허덕이는 카카오페이증권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5594>
12. 인사이트코리아 — 카카오페이증권 적자 탈출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51>
13. 인사이트코리아 — 넥스트증권, 숏폼 기반 MTS로 혁신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213>
14. 인베스트조선 — 토큰증권 발행(STO) 준비 마친 증권사들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9/26/2025092680112.html](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9/26/2025092680112.html)
15. 서울파이낸스 — 증권사 AI 서비스 영역 확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 — <https://www.seouln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249>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IT/Digital 개발·운영

16. 매일신문 — KB증권 MTS 점유율과 IMA 실탄 확  
보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30509593247654>
17. 나무위키 — 한국투자증  
권 — <https://namu.wiki/w/%ED%95%9C%EA%B5%AD%ED%88%AC%EC%9E%90%EC%A6%9D%EA%B6%8C>
18. 위키백과 — 한국투자금융지  
주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D%88%AC%EC%9E%90%EA%B8%88%EC%9C%B5%EC%A7%80%EC%A3%BC>
19. KIS 신용평가 — 한국투자증권 크레딧 오피니언  
(2025.09) —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0926-26.pdf>
20. 더벨 — 한국투자증권 CTO 신설 보  
도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12261521071920109160&lcode=00>
21. 전자신문 — 클라우드웍스, 한국투자증권 생성형 AI 플랫폼 구  
축 — <https://www.etnews.com/20250804000047>
22. 팩스경제TV — 한국투자증권 디지털 혁신 가시화, AI리서치 등 두  
각 —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87>
23. 비즈워치 — "말로만 디지털 전환? 실제 성과로 보여줄 것"(정일문 인터  
뷰) —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3/02/23/0036>
24. 시사오늘 —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공격 확장, 운용 수익 급  
증 —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32>
25. 인사이트코리아 — '역대급 실적' 한국금융지주, 4분기 순영업수익은 감  
소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77>
26. 디지털데일리 — 증권업계 '전산장애' 위험 심각, 프로그램 오류 증  
가 — <https://m.ddaily.co.kr/page/view/2025082515565820179>
27. 디지털타임스 — 금감원 증권사 CIO 긴급 소집 — <https://www.dt.co.kr/article/12050455>
28. 자소설닷컴 — 한국투자증권 FY2026 채용연계형 인턴 공  
채 — <https://jaseol.com/recruit/103399>
29. 링커리어 — 한국투자증권 FY2026 채용연계형 인턴 공  
채 — <https://linkareer.com/activity/312456>
30. 잇다 — 증권사 IT 직군, 이런 점이 다릅니다 — [https://www.itdaa.net/open\\_mentorings/2980](https://www.itdaa.net/open_mentorings/2980)